

종교신앙이 푸미족 주거문화에 미치는 영향

-중국 윈난성 란핑, 닝랑 지역 전통가옥 "목룽방(木楞房)"을 중심으로

ZHAO ZIJUN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푸미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 인구가 적은 민족으로 주로 윈난성에 거주한다. 이 글은 현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푸미족의 생활환경, 종교신앙,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푸미족 전통 가옥의 구성에 대해 연구한다. 푸미족의 가옥은 본채, 별채 그리고 기타 용도의 방으로 나뉜다. 본채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포함해 푸미족의 종교적 신앙이 가옥의 각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푸미족 전통 가옥의 주요 건축 형태는 '목룽방(木楞房)'이며, 통나무 구조의 주체와 '목편' 지붕은 푸미족의 소박하면서도 투박한 민족적 특징을 보여준다.

[주제어] 푸미족, 전통 가옥, 목룽방, 종교신앙

1. 머리말

푸미족은 윈난성 누장주의 란핑현, 샹그릴라 지역의 웨이시현, 리장지역의 융성현, 닝랑현, 리장현 등의 곳에서 주로 거주한다. 필자의 답사 대상은 란핑현과 닝랑현에 사는 푸미족이다. 푸미족은 주로 란창강 양안의 높고 험한 산에서 살고 있다. 란창강 양안에 위치한 산은 평균 해발 3,500m 이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다. 산봉우리에 위치한 설선(雪線)을 기준으로 설선 위로는 항상 흰 눈이 덮여있고, 란창강 계곡 밑으로는 검마와 같은 열대 식물들이 가득 자라나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푸미족은 대부분 산 중턱에 있는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언덕에 모여 산다. 적게는 일고여덟 가족이, 많게는 이삼십 가족이 한 마을을 이룬다. 대다수의 마을은 같은 성씨의 가족끼리 모여 산다, 그래서 한 개 성씨가 한 개 마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2. 푸미족 전통 가옥 자재와 구조

1) 푸미족 전통 가옥의 건축 자재

푸미족의 전통 가옥은 모두 현지에서 조달한 목재로 지은 "목룽방" (木楞房) 건축양식이다. 직경 10-15센티미터로 된 윈난 소나무를 사용하여 우물정자(井) 형태로 한층 한층 겹쳐 쌓아 만든 건축물이다. 푸미족은 유목민족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재건이 용이하도록 목재 위에 동서남북과 상하를 표기하고 지붕은 배수가 잘 되도록 "사람인 자(人)"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또한 얇은 나무판자를 지붕 덮개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나무 기와(木頭瓦片)" 라고 부른다. 나무 기와는 길이가 1 ~ 1.5 미터, 두께는 1 ~ 3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톱을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삼나무 원목을 그대로 벗겨서 만든 것이다. 원목을 자른 후 나무 결을 따라 단면과 나무 껍질을 두드리면 나무 사이에 틈이 벌어 지는데 그 틈을 이용하여 나무 결을 따라 한 겹 한 겹 벗겨낸다. 나무 결을 따라 벗겨낸 나무 위에는 물결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데 윤이 나고 거칠지 않다. 이렇게 만든 목판은 푸미족의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 지며 목판의 수량은 목룽방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 짓는데 일반적으로 한 칸을 만드는데 200 여개의

목재가 필요하다.

2) 푸미족 전통 가옥 구조

푸미족의 전통 가옥은 1층 혹은 2층으로 된 층집 구조 형태이며 란핑(蘭坪)지역 푸미족의 집은 2층 구조로 총 5개 부분 나누어져 있다. 위에는 본채, 좌우 양측은 별채, 아래는 가족 우리, 중간은 평평한 정원으로 되어 있다.

2층 우측 방은 농기구나 잡동사니를 보관하고 1층 중간은 정당(正堂)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동시에 침실로 사용한다. 정당 가운데에는 나무로 둘러 쌓인 네모꼴의 화당(火塘;불을 피우는 구덩이)이 있는데 화당 정중앙에는 철제 삼각대를 놓았다. 화당의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되는데 이는 계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화당의 불은 실내를 밝히는 등의 기능 역할도 한다. 화당의 벽쪽에는 신령을 모시는 감실(神龕)이 있고 향로가 놓여져 있다. 화당 근처에는 침대가 있는데 화당과는 일정한 거리를 꼭 유지해야 한다. 화당 근처에 침대를 놓은 이유는 고산지대의 밤은 기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온기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화당 좌측은 가장 윗사람의 남자가 사용하며 손님은 우측만 사용할 수 있다. 며느리나 딸 등은 윗사람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화당 아래 쪽에 있어야 한다. 화당은 이렇게 남녀 존비를 구분 짓는 공간이기도 하다.

"화당문화"는 윈난성의 많은 소수민족의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 인류는 불이 성령이 깃든 신령이라고 여겼으며 인류에게 광명과 따스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류에게 재난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인류는 불에 대해 감사함과 두려움 둘 다 가지고 있었으며 푸미족 역시 불을 숭배하였다. 화당의 철제 삼각대는 집 안에 있는 가장 신성한 물건 중에 하나로 누구를 막론하고 삼각대를 넘어 다녀서는 안 되며 불에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 명절이 돌아오거나 관혼상제가 있을 때 마다 "삼각제(祭三脚)" 의식을 거행한다.

별채는 본채 양쪽에 위치해 있으며 1층과 2층까지 모두 용도는 각각 다르게 사용된다. 대부분은 위층에서 생활하고 아래층은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별채는 특별히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통일된 표준이 있지 않고 보통 생활 습관에 따라 저장이나 보관, 침실 혹은 주방으로 사용했다. 본채와 별채 사이에는 정원이 하나 있는데 역시 중요한 장소 중의 하나로 집집마다 반드시 가지고 있었다. 일부 일상생활과 노작 외에 혼례나 장례 또는 경축일 모두 중요 행사는 모두 여기에서 거행한다.

3. 건축양식에 표현된 푸미족의 신앙

푸미족은 범신 신앙을 믿는 민족으로 최초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만물유생론의 자연 숭배를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독특한 원시 종교를 숭배하는 한규교(韓規敎)로 발전하였고 동시에 티베트 불교, 분교 및 도교 역시 스며들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면서 복잡한 종교 신앙 체계를 형성하였다. 종교 신앙은 푸미족 전통 가옥의 건축 양식과 장식에도 잘 드러났다.

1) 한규교

한규교는 역사상 푸미족 민족신앙으로 불리는 고대 종교이다. 한규교는 자연숭배 및 무속(巫術) 초석에서 발전된 하나의 원시 신앙으로 이후 분교(苯敎)와 티베트 불교 교리가 융합되어 티베트 불교 경전을 기초로 하는 매개체를 만들고 복잡한 의식 체계를 형성, 독특한 고대 종교로 갖추게 되었다.

한글교는 동시에 분교와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한글교 내에 무속(巫術)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교의 무속(巫術) 요소가 가장 많이 섞여 있다.

한글교는 푸미족의 거주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 중 건축양식에 많이 드러난다. 닝랑(宁蒗)지역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중심 기둥을 세우는 날짜를 한글교를 통해 받았는데 보통 가족들과 상극이 되는 시를 피해 진행했다. 완공이 된 후에는 진화의식(進火儀式,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노인은 의복을 차려 입고 소라를 붙여 불을 새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 떠나 오행을 계산하여 화(火)에 속하는 사람은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고 토(土)에 속하는 사람은 흙을 한 줌 쥐고 방으로 들어가며(흙을 화당 위에 두고 불을 붙인다), 수(水)에 속하는 사람은 물을 길러 방으로 들어가고 목(木)에 속하는 사람은 땀감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고 금(金)에 속하는 사람은 삼각대, 바가지 그리고 칼 등의 철기를 가지고 방에 들어간다.

2) 티베트 불교

푸미족은 오래전부터 티베트족과 같은 지역에서 생활했다. 이로 인해 티베트불교는 일찍부터 푸미족 지역에 유입되었는데 닝랑(宁蒗)지역의 전체 푸미족은 티베트불교를 믿었고 가가호호 집안 우측에는 모두 감실(神龕)을 두었다. 높이 3척, 넓이 2척 정도되는 양각 목패, 재물신을 상징하는 원뿔꼴 모양의 “종파랍(宗巴拉)” 중간에 천(하늘), 지(땅), 일(태양), 월(달), 성(별), 운(구름), 소라 및 연꽃 등의 무늬를 새겨 섬기었다.

3) 조상숭배

조상숭배는 푸미족 신앙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은 조상의 영혼이 집안의 중간 기둥과 삼각대 가장자리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에 매년 성대하고 엄숙한 제사를 거행하였으며 란핑(蘭坪)지역의 제사는 주로 “지붕제(祭房頭)”인데 매년 설날, 2월 초 열흘 혹은 8월 초열흘 중 날짜를 선택하여 제사를 지냈다. 소주, 녹차, 향촉, 명폐(冥幣, 종이돈)등을 제물로 받치고 지붕에 길이 5척되는 청송 나무를 세워 오색기를 삼면에 꽂고 가족 중 성년의 남자가 역대 모든 사자(死者)의 이름을 부른 후 방의 머리 말 부분(房頭)에 차(茶)를 떨어뜨려 받치고 가족의 평안을 조상에게 빌었다. 이외 푸미족 전통 가옥 중에는 방 안에 모두 조상을 상징하는 기둥을 세워 두었는데 란핑 옥사장촌 마을(玉獅場村) 중 고택 한 채를 제외한 모든 가옥에는 이미 기둥이 존재하지 않았다.

4) 토데미즘

푸미족의 토데미즘 대상은 주로 두꺼비, 호랑이, 양, 소라 등이다. 그 중 소라는 푸미족의 일상 생활 풍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각종 제사 풍습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지지대를 세우기(立頂杆)은 닝랑(宁蒗)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건축 의식인데 지지대를 세워 사람과 자연의 소리를 소라를 통해 전달하는 의식이다. 소라에는 꽃소라, 백소라 그리고 흑소라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꽃소라가 가장 높은 계급으로 가장 큰 보살을 맞이할 때 주로 사용하고 백소라는 다양한 신선을 소환할 때, 흑소라는 흉물을 쫓을 때 사용한다.

4. 맺음말

이 글은 푸미족의 생활 환경, 종교신앙, 민속 문화를 통해 푸미족 전통 가옥의 구성에 대해 분석했다. 푸미족의 가옥은 본채, 별채 그리고 기타 용도의 방으로 나뉜다. 또한 종교 신앙이 푸미족의 주거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푸미족의 종교에는 한교, 티베트불교, 조상 숭배, 토데미즘 등이 포함돼 있다. 종교가 푸미족 전통 가옥에 미치는 영향은 가옥의 구성, 인테리어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지내는 의식과 제사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푸미족의 전통 가옥은 소박하면서 투박하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들을 현지에서 구하기 때문에 가옥은 산 중턱의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목룽방(木楞房)에는 목재가 많이 소비된다, 생태환경 보호 문제가 중요시되고 목재의 원가가 높아지는 지금 목룽방(木楞房)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대신 마을들에는 기와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푸미족의 생활 습관도 크게 바뀌었으며 이들의 건축 양식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 黃碧雯, 「基於永寧摩梭人的民俗生活分析其民居的形式」, 『音樂時空』, 貴州省文聯, 2017.
- 王晶, 唐文, 「普米族傳統民居」, 『華中建築』 12, 中南建築設計院, 湖北省土木建築學會, 2012.
- 熊遠正, 「緩坡上的普米族民居」, 『今日民族』 01, 雲南省民族事務委員會, 2004.
- 「民族問題五種叢書雲南省編輯委員會基諾族普米族社會歷史綜合調查」 民族出版社, 1990.